

09

화학약품에 중독된 종업원을 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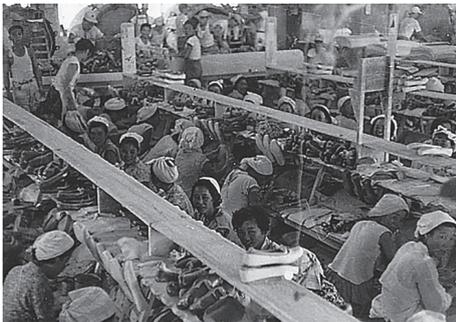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으로 한국의 산업도 점차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발전 우선 시책은 변함이 없었고, 사업장과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도 변화가 없었다.

전신마비 환자 발생, 열악한 작업환경이 문제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무허가 운동화제조 고무공장. 1972년부터 40평의 슬레이트 건물에서 40여명의 종업원들이 하루 17시간씩 운동화를 재단하고, 재봉하고, 고무창을 붙이는 작업을 했다.

1974년 2월 중순, 고무창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24명의 근로자 중 13명에게 심한 마비증상이 발생했다.

1970년대 고무신공장의 전경



손발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졌다.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전신마비였다. 나머지 11명에게도 다리가 쭈시고 눈이 침침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극심한 고통이었으나, 고용주에게 증상을 말할 수 없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옹하다는 한약방을 찾아다녔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1974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다. 동아일보는 작업장에서 집단으로 발병하였으니 업무상 중독증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기사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간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요원들은 말문이 막혔다. 통풍장치가 없는 작업장은 휘발유와 고무냄새로 가득했다. 고무창을 건조하는 무쇠솥은 49공 연탄을 사용했는데, 연탄가스가 빠지지 않아 만성 연탄가스 중독자까지 관찰되었다.

“누가 오래 버티나” 내기하는 근로자들 머리맡엔 고무풀이...

비슷한 시기, 영등포구의 다른 고무공장에서도 13명의 종업원 중 9명이 허반신 마비증상으로 입원했다. 정밀검사 결과, 그들은 한국 최초의 '노말헥산(n-Hexane)에 의한 다발성 신경염 중독자'로 진단되었다. 고무풀의 용제로 사용한 '솔벤트 250'에 함유된 노말헥산에 중독된 것이다.

1977년 중반, 용산 소재 무허가 영세 가내 신발공장에서 4명의 노말헥산 중독환자가 또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던 방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왔다고 했다. 그들의 머리맡에는 늘 항공기용 휘발유에 생고무를 녹여 만든 고무풀이 놓여 있었다.

고무풀 뿐만이 아니었다. 화학물질 중독사건은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했다.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수은을 맨손으로 취급한다든지 벤젠증기가 새어나오는 곳에서 일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근로자들의 이런 증상이 염려된 일부 사업주는 이상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한약을 지어먹이거나 침을 맞게 했다. 근로자들은 화학약품 냄새가 심한 곳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내기를 하기도 했다.…… 조규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 대한산업보건협회

노력에 빛이 들다... 사업장 스스로 산업보건

산업보건에 중사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 바로 사업장이 스스로 산업보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직접적인 인정보다 더욱 기쁜 일이었다.

1970년대 후반, 울산에 크롬공장이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크롬중독 사건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 하던 시절이라, 한국의 마스크도 크롬공장 설립을 보도하는데 열을 올렸다. 정부는 크롬공장의 허가 여부를 두고 매일 논란을 벌였다. 결국 산업보건전문가를 울산에 보내 크롬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중크롬산소다 제조에 따라 발생하는 공해물질에 대한 처리시설에 전체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쏟아 부었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이 오히려 겸손으로 들렸다. 대기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한 영국제 전기집진기가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들을 맞이했다. 근로자들을 위한 목욕탕과 개인용 옷장에도 눈길이 갔지만, 무엇보다 크롬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자가측정 연구소가 압권이었다.

‘문제없음’ 최종 평가였다.

놀라운 변화였다. 그동안의 산업보건에 쏟은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